

국별 리포트

#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1

## I. 일반개황

면적	488천 km <sup>2</sup>	G D P	362억 달러(2016년)
인구	5.46백만 명(2016년)	1 인 당 GDP	6,622 달러(2016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Manat
대외정책	터키 및 중국과 긴밀한 협력	환율(달러당)	3.50

-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 러시아, 카타르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의 천연가스(17.5조 m<sup>3</sup>)를 보유한 자원부국으로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민족혈통적으로 오구즈 투르크계이며,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사한 터키, 아제르바이잔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언어적으로도 투르크멘어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언어에 비해 터키어와 높은 유사성을 가짐.
- 가스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여,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가스관 건설 등을 통해 중국, 인도 등으로 가스 수출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 2007년 집권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2012년 2월 97%의 득표율로 재선, 2017년 2월 97.7%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하여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sup>f</sup>
경제성장률	10.2	10.4	6.5	6.2	6.5
재정수지 / GDP	1.5	0.9	-0.7	-1.3	-0.8
소비자물가상승률	6.8	6.0	7.4	3.5	6.0

자료: IMF

#### □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 2000년 이후, 새로운 가스전에서의 가스 생산 확대 및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의 수출확대에 따라 평균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5년 이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천연가스 국제가격 하락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15년 6.5%, 2016년 6.2%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공공투자 36.8% 감소, 외국인 직접투자 27.6% 감소 등이 건설 부문의 침체로 이어져 경기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음.

#### □ 2015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 지속

- 2013년 생산이 시작된 세계 두 번째 규모의 갈키니쉬 가스전에서의 가스 생산 및 수출 증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재정흑자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GDP의 23%에 달하는 보조금 지출,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점차 흑자폭이 감소하였음.
  - 국내소비의 침체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도 정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보조금 지출,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에 따라 재정수지 비중이 2015년에

는 GDP 대비 -0.7% 적자 전환되었으며, 2016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GDP 대비 -1.3%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

- 2017년에는 정부지출 감소, 추가 보조금 축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GDP 대비 -0.8%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소비자물가상승율은 다소 안정세

- 2015년 1월 마나트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4%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3.5%로 다소 안정됨.
- 에너지 국제가격의 하락,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환율 상승, 암시장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5년 1월 1달러당 2.85마나트에서 3.5마나트로 마나트화를 18.5% 평가절하한 바 있음.
- 정부의 민간에 대한 전기, 가스, 통신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 정책과 생필품 가격의 인상 등으로 2017년에는 6.0%의 물가상승률이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물류 인프라 취약

- 1991년 독립 이후 에너지 이외의 다른 산업의 발달이 부진하며, 국토의 80%가 사막으로 이루어진 자연환경에 따른 물류 인프라 미흡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투자환경이 취약함.
- 2016년 세계은행이 평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제물류지수는 세계 160개 평가대상국 가운데 140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평가항목 가운데 물류경쟁력 145위, 국제운송 127위 등을 기록함.

#### □ 에너지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천연가스 및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부문이 GDP의 50%, 재정수입의 80%, 수출의 90%를 차지하여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적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80%,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에너지 국제가격의 변동과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 러시아 등의 경제상황 변동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천연가스 생산확대 및 수출노선 다양화

- 2013년부터 생산이 개시된 세계 두 번째 규모의 갈키니쉬 가스전의 천연가스 생산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을 통해 중국으로 연결되는 세 개의 가스관 완공을 통해 가스 수출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1년의 595억 m<sup>3</sup>에서 2013년 623억 m<sup>3</sup>, 2016년에는 668억 m<sup>3</sup>로 늘어나는 추세임.<sup>1)</sup>
  - 첫 번째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이 2009년 12월 개통된 이후,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두 개의 가스관이 추가로 완공되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2015년에는 연 277억 m<sup>3</sup>에서 2016년에는 294억 m<sup>3</sup>로 증가하는 추세임.
  -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즈-중국으로 연결되는 네 번째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의 완공 이후에는 최대 수출규모가 연 650억 m<sup>3</sup>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5년 12월부터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가스관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갈키니쉬 가스전에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경유해 인도로 가스를 수출할 계획임.
  - TAPI 가스관은 전체 길이가 약 1,800km(투르크메니스탄 200km, 아프가니스탄 773km, 파키스탄 827km)이며, 완공 후에는 연 370억 m<sup>3</sup>의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1)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7.

- 2018년 말까지 투르크메니스탄 구간이 완공되고, 2019년까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구간이 완공되며, 2020년에는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 추진

- ADB를 비롯한 다자개발은행이 지원하는 철도, 도로 건설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AIIB,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통한 운송 인프라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ADB의 CAREC 프로그램에서 추진하는 국제운송로(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터키,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즈)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하고 있음.
- 카스피해 연안의 투르크멘바쉬 항에 15억 달러 규모의 항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완공 후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투르크멘바쉬 항만의 연간 운송량은 약 1,500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항만건설에는 여객선 터미널과 컨테이너 터미널이 포함되어 있음.

다. 정책성과

□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며, 석유화학 플랜트 및 관광특구 조성

- 2010년에 발표된 ‘2011~30 장기사회·경제발전전략’에 따라 대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석유산업 육성, 관광특구 조성, 아쉬하바드 건설 부문 투자 등 산업다변화가 추진되고 있음.
- 최대 에너지 자원인 천연가스의 부가가치 향상과 가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가스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음.
- 카스피해 연안의 아바자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호텔, 카지노, 쇼핑센터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역내외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확대를 통한 운송, 물류 환경 개선**

- 2007년부터 추진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을 연결하는 남북 철도(North-South Railway)가 2014년 12월 개통되어 중앙아시아와 이란을 연결하는 운송망이 건설됨.
  - 남북철도 건설을 통해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만으로의 철도 연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물류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3개국을 연결하는 400km의 철도가 2015년 7월 완공되어 주변 국가들과의 물류 환경이 개선됨.
  - 전체 투자 규모는 2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철도는 향후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제운송로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됨.

□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계기로 인프라 개선과 국제화 추진**

- 2017년 10월 제5회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7년 에너지 현장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11월에 개최되는 28차 '에너지 현장 컨퍼런스'를 비롯한 관련 국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임.

**3. 대외거래**

□ **서비스수지의 적자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기록**

-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상수지는 천연가스 국제가격 상승과 수출증대를 통해 상품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신규 가스전 개발을 위한 자본재 및 서비스 수입 증대 등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갈키니쉬 가스전 등 에너지 개발을 위한 서비스 수입확대로 경상수지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마나트화 환율 상승**

-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은 러시아 등 주변국 환율 상승과 에너지 국

제가격 하락에 따른 마나트화 환율 상승 압력으로 2015년 1월 평가절하 조치를 시행함.

- 마나트화 환율은 2009년 이후 달러당 2.85마나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러시아 루블화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 등의 요인으로 2015년 1월 달러당 3.50마나트화로 18.5% 상승하였음.
- 또한 정부는 2016년 1월 환전소에서의 외환거래를 중단하고 은행과 기업들의 외환거래 담당자들에게만 외환매매를 허용하였으며, 7월에는 기업들의 외환매입을 제한하는 등의 외환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음.

#### □ 양호한 외채구조 유지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및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는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 총외채잔액은 2015년 70억 달러, 2016년 8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19.4%, 23.9%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15년 1.6%, 2016년 3.8%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5년 15.3%에서 2016년 22.2%로 상승하였으나, 2017년에는 12.9%로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지속에 따라 2015년의 294억 달러, 2016년 279억 달러로 큰 변동이 없으며, 이는 20.5개월분의 수입액에 해당되는 금액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sup>f</sup>
경 상 수 지	-2,880	-2,769	-5,054	-7,605	-5,405
경상수지 / GDP	-7.4	-6.4	-14.0	-21.0	-12.8
상 품 수 지	2,956	3,037	3,502	1,856	2,432
수 출	10,999	11,388	9,561	6,735	7,040
수 입	8,042	8,350	6,059	4,879	4,608
외 환 보 유 액	30,162	30,897	29,356	27,867	27,867
총 외 채 잔 액	8,643	7,827	6,979	8,638	10,295
총외채잔액 / GDP	20.8	18.4	19.4	23.9	24.3
D S R	2.2	9.8	15.3	22.2	12.9

자료: EIU, OECD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2017년 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3선 성공

- 전임 대통령인 니야조프의 사망으로 2007년 집권한 베르디무하메도프 (G. Berdymukhamedov) 대통령은 2017년 2월 97.7%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하여 정치적으로 안정됨.
- 2016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의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대통령 선거 출마연령을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됨.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반정부 세력의 부재로 소요사태 발생가능성은 낮음

-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와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여러 형태의 보조금 지급 축소 등이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독립된 언론이나 반정부 세력의 부재로 인해 소요사태 발생가능성은 낮은 수준임.

### 3. 국제관계

#### □ 1995년 UN으로부터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이후 대외정치적으로 독자적인 노선 추진

- 러시아 주도의 CIS에는 준회원국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또 다른 러시아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와 안보협력체인 CSTO(집단안보조약기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중국 주도의 SCO(상하이협력기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음.

#### □ 터키,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과 경제협력 추진

- 민족, 언어 등이 유사한 터키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터키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건설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천연가스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는 에너지 이외의 부문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은 2015년 기준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수출의 60.7%, 수입의 14.2%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협력국임.
- 2017년 3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전력, 석유 교역 등이 논의된 바 있으며, 향후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최초의 해외순방국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으로 연결되는 전력망 건설과 투르크메니스탄

생산 원유의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정유공장으로의 수출을 논의하였음.

- 2017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자흐스탄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국경 문제 해결, 테러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 추진을 논의함.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양호한 수준의 외채상환태도

- 투르크메니스탄은 파리클럽과의 공적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은 없으며, 전반적인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임.
- 2017년 3월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 잔액은 총 51억 2,150만 달러임(단기 4,050만 달러, 중장기 50억 8,100만 달러).

##### 2. 국제시장평가

□ OECD는 2008년 2월 이후 6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등급 미부여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17. 1.)	6등급 (2016. 1.)

\* 투르크메니스탄은 S&P, Moody's,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16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3억 6,200만 달러 수준으로 미미

- 우리나라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수출규모에 비해 수입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2016년 기준 수출액은 3억 6,17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입액은 9만 2,000달러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 화학기계, 전력용기기 등임.

<표 4> 한·투르크메니스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4	2015	2016	주요품목
수출	192,987	182,162	361,773	섬유 및 화학기계, 전력용기기, 계측제어분석기
수입	156	31	92	기호식품, 의류
합계	193,143	182,193	361,865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6년 말 기준 6건, 100만 달러를 기록

- 2016년 12월 말 기준 대 투르크메니스탄 직접투자 규모(누계기준)는 총 6건, 100만 달러(투자금액)로 미미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투자는 건설업(90만 달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V. 종합 의견

- 2015년 이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에너지 자원의 국제가격 하락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여, 2015년 6.5%, 2016년 6.2%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보조금 지출,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에 따라 재정수지는 2015년 GDP 대비 -0.7%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GDP 대비 -1.3%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2017년에는 정부 지출 감소, 보조금 축소 등으로 GDP 대비 -0.8%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30 장기사회·경제발전전략을 통해 대규모의 가스플랜트 프로젝트 추진, 섬유산업 육성, 카스피해 연안의 아바자 관광특구 조성, 아쉬하바드

2) 우리기업들은 2015년 현대엔지니어링, LG 상사,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3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생산 설비 건설을 수주하는 등 여러 건의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건설 부문 투자 등을 통해 산업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6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의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대통령 선거 출마연령을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2017년 2월 97.7%의 득표율로 3선에 당선되어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함.
-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19.4%, 23.9%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15년 1.6%, 2016년 3.8%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선임연구원 조영관 (☎02-6255-5759)

E-mail: ykj@koreaexim.go.kr